

정당이나 인물이나 ... 막판까지 혼전 또 혼전

나주시장

나주시장 선거가 막판까지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 초반만 해도 강인규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으면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인 임성훈 무소속 후보가 혁신도시 발전을 이끌 '인물론'을 앞세워 선거 막판 판세를 뒤엎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양 후보 캠프에서는 서로 오차범위 내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강 후보 측에서는 학력을 중심으로 한 '인물론'에는 불우하고 가난한 6남매 장남으로 태어나 학업에 정진할 수 없었다

혁신 도시·원도심

상생발전 막판 이슈

며 오히려 감성적인 접근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강 후보 측에서는 농협조합장, 시의회 의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농민과 서민층의 표심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선거 막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인사들의 지원에 따라 고정 지지층의 결집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1일 "선거 초반 우세를 점했으나 현재는 경합 우세인 상황"이라며 "하지만 선거 막판, 새정치민

주연합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지면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임 후보 측에서는 선거 이슈가 '혁신도시 발전을 이끌 역량과 비전'으로 가득 차가면서 판세가 역전됐다는 입장이다. 정당 후보가 아닌 인물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민심이 강하게 형성됐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각종 토론회에서 혁신도시 시장으로서의 역량과 비전 측면에서 임 후보가 강 후보에 비해 두드러진 우위를 보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선 5기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더해지면서 선거 막판까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소속 김대동 후보가 사퇴 이후, 임 후

보 지지에서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후보 캠프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과 혁신도시 시장론이 연쇄 반응하면서 강 후보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하락했다"며 "전체적인 판세는 임 후보가 이미 역전한 상황이며 이 같은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거 막판까지 혼전이 펼쳐지면서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 발전 방안이 막판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혁신도시 발전을 이끌면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공약에 나주 민심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 후보 진영에서는 경쟁적으로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 발전 방

■나주시장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무소속
이름	강인규(59)	나창주(80)	임성훈(54)
경력	·정당인 ·전 나주시의회 의장	·농업인 ·전 국회의원(13대)	·나주시장

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나주 민심이 막판까지 혁신도시 발전을 이끌 '인물론'으로 흐른다면 임 후보의 우세가,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 결집이 이뤄진다면 강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금품살포"·유언비어·비방 공세 ... 난장판 선거

화순군수

"난장판입니다." 1일 화순 군수 판세를 묻는 질문에 지역 정계 관계자는 한숨과 함께 이렇게 답했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군수 선거가 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또 다시 금품 살포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인되지 않는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후보들 간의 비방 공세도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정적 선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엔 선출된 군수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설익은 관측마저 내놓고 있다. 일단 전체적인 판세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번엔 선출된 군수도

임기 못채우는것 아니냐"

의 구공군 후보와 부부군수의 무소속 임호경 후보, 형제군수의 무소속 전형준 후보가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무소속 구복규, 배동기, 임갑수 후보가 막판까지 바닥을 다지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화순군수 선거의 특이점은 과거의 2~3차 대결구도가 아닌 6자구도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혼전 양상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유권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피고발인 A씨는 화순군수 모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알려졌다. 화순군 선관위는 A씨의 차량 내부에서 선거인명부, 후보자의 명함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또 다른 모 후보 측이 자원봉사자에 금품 살포를 했다는 등 각종 금권 선거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권 선거가 선거 막판에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화순군수가 각종 금권선거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깨끗한 후보를 뽑자는 민심의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화순군수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구중근(55)	구복규(59)	배동기(58)	임호경(62)	임갑수(49)	전형준(58)
경력	전 전남도립대학교총장	전 전남도의원	전 화순군 부군수	전 화순군수	전 국회의원 비서관	전 화순군수

새정치민주연합 구중근 후보는 "화순의 명예를 지키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승리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 후보 측에서는 박지원 의원 등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맞서, 부부군수의 임호경 후보와 형제군수의 전형준 후보는 기존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화순지역 정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전체적으로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의 금권 선거가 당락을 가를 선거 막판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형제군수, 부부군수도 다시 출마했다는 점에서 화순군민이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역 갈라지고 고소 고발... 누가 이기든 후유증 클 듯

장성군수

장성군수 선거는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군수와 전직 부부 군수와의 대결로 이목이 집중되면서 지역이 양측으로 갈려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허위학력기재 등 각종 사안으로 상호 고소·고발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23일 남편 선거를 도와 달라며 손모(여·52)씨에게 거액을 전달한 현직 군수 부인 김모(53)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돈을 건네받은 손씨 역시 31일 같은

금품 살포 불법 선거운동

양측 공방전 극단 치달아

혐의로 구속되면서 양측의 공방전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8일 새벽 29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가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면서 한 때 선거전을 중단했던 양 캠프는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바로 거친 공방전을 이어갔다. 지방관료 출신인 현직 군수인 김양수

(63) 후보는 ▲나노산업단지 조성 ▲농협 물류센터 준공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등 3대 프로젝트의 임기 내 실현과 함께 5만 군민, 5000억원 재정, 500개 기업 등을 담은 '5·5·5 시대'의 개막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중앙관료 출신으로 전직 군수인 유두석(64) 후보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LH 행복마을 유치 ▲나노산업단지 조성 등과 함께 황룡강의 국가하천 승격, KTX 고속열차의 장성역 정착 등을 약속하고 있다. 부인의 구속으로 한 때 위기에 몰렸던 김 후보가 이후 돈을 건네 받은 여성이 함

께 구속되면서 분위기를 조금 상쇄한 듯하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은 김 후보가 다소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유 후보가 자신의 부인이자 김 후보와 군수직을 두고 다투던 이청 전 군수와 함께 밑바닥을 훑으면서 유 후보가 따라 붙어 초박빙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김 후보는 이날엔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막판 굳히기에 나서고 있고, 유 후보는 김 후보 부인 구속과 함께 전세가 뒤집혔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지난 29일 장성군 황룡시장에서는 두 후보 진영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길 양쪽에서 유세를 벌이는 등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일단 장성군의 전체 유권자 4만6570명 가운데 장성을 1만3749명, 삼계면 7085명, 황룡면 4464명 등 3곳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양 후보는 이들 3곳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4년간 묵묵하게 일했던 실적을 평가받고 앞으로 4년간 새롭게 일할 비전을 제시해 재 신임을 얻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장성은 재원이 부족한 만큼 미래의 도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려면

■장성군수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이름	김양수(63)	유두석(64)
경력	장성군수	전 장성군수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힘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지방선거 종류

교육감선거 / 시·도지사선거 / 구·시·군의 장선거 / 시·도 및 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광명선거홍보대사
방송인 서경석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광명선거홍보대사 MBC아나운서 김소영